

종이가 살아있는 듯 '꿈틀'...세계팝업아트전

[FunFun 문화현장]

최종편집 : 2013-04-12 12

트위터 | 페이스북 | 미투데이 | 요즘 | 싸이월드

+

-

<앵커>

문화현장, 이번 주에 볼만한 전시를 소개해드립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앵커>

문화현장, 이번 주에 볼만한 전시를 소개해드립니다.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출신 젊은 작가 스티링 루비는 캔버스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겹겹이 쌓아 작업을 합니다. 밤마다 갯단들이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자기 조직을 상징하는 문양을 그려넣는 바람에, 성할 날이 없는 LA 빈민가의 벽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전시에서 작가는 최신작인 도자기 작업도 선보입니다.

권란 기자 harasho@sbs.co.kr